

담임목사 70%, ‘직분제 개혁이 교회에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대 변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기존의 교회 제도와 관습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국의 담임목사 521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행정·제도 관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직분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행 당회나 제직회 등 행정 회의가 효율적이다’에 동의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과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일수록 기존의 ‘관습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담임목사의 70%는 ‘직분제 개혁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수행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익숙한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중심에 두고 제도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이번 「넘버즈 338호」가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제도·행정 구조를 건강하게 리모델링하는 데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직분·제도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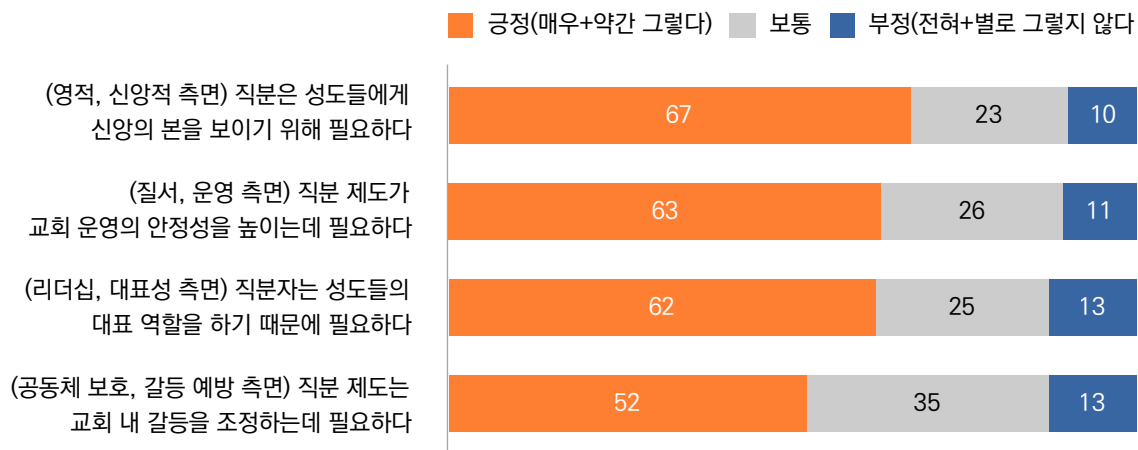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교회의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521명(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6년 02월 19일 ~ 2026년 02월 23일(총 5일)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목회자 67%, '신앙의 본' 보이기 위해 직분 필요!

- 직분 제도 필요성을 느끼는 구체적 측면으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영적·신앙적 측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교회 운영의 안정성 향상(질서·운영 측면)'(63%), '직분자의 성도 대표 역할(리더십 측면)'(62%)도 60% 이상을 동의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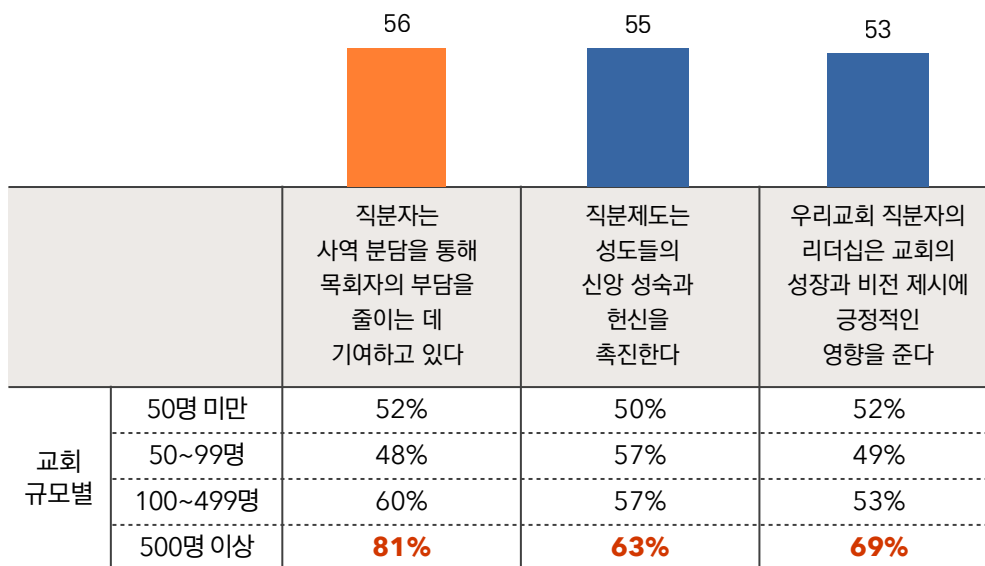
[그림] 직분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담임목사, N=521, %)



대형교회일수록 직분 제도의 긍정적 역할 인식 높아

- 직분 제도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담임목사들은 '목회자의 사역 부담 경감'(56%),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헌신 촉진'(55%), '교회 성장과 비전 제시에 긍정적 영향'(53%)에 50% 남짓만이 동의했다.
- 다만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목회자의 사역 부담을 줄여준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직분자들의 사역 분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직분 제도의 긍정적 기능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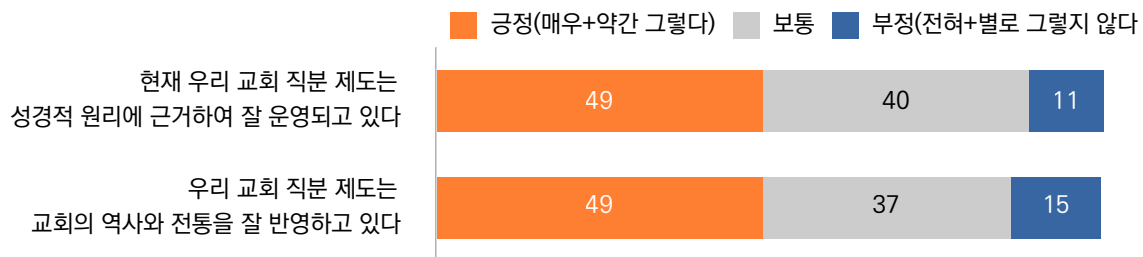


*5점 척도

현 시무교회 직분 제도 운영, 교회 규모 클수록,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성경적' 잘 운영된다고 평가!

- 현 시무교회의 직분 제도와 관련해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 잘 운영되고 있다'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가 각각 49%로 목회자의 절반 정도만 동의해, 이 역시 나머지 절반은 현 직분 제도가 성경적 원리나 전통을 반영하여 잘 운영된다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교회 규모별 인식 격차인데, '5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는 성경적 원리대로(42%), 교회 역사/전통을 잘 반영하여 운영된다(41%)는 응답이 40%대 초반에 그친 반면, '5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는 동일 항목이 각각 67%, 58%에 달해 교회가 클수록 현재 시무교회의 직분 제도 운영에 대한 담임목사의 긍정 평가가 훨씬 높았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52%)가 쇠퇴하는 교회(44%)보다 직분 제도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림] 시무교회 직분 제도 관련 인식 (담임목사, N=521,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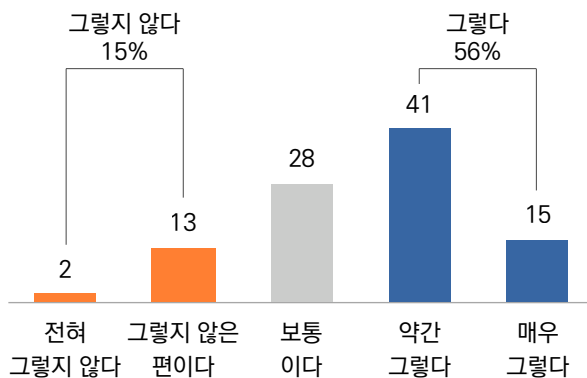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직분 제도 관련 '긍정' 인식 (교회 규모별/교인 수 증감별,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현재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42%	41%
	50~99명	49%	50%
	100~499명	53%	57%
	500명 이상	67%	58%
교인 수 증감별	증가	52%	45%
	감소	44%	47%

목회자 절반 가까이(44%), '직분 제도 필수적이다'에 공감하지 않아!

- 직분 제도 필요성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의 56%만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44%는 '보통' 혹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쳐 직분제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다소 약했다.
-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규모가 '500명 이상' 대형교회일수록 직분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직분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담임목사, N=521,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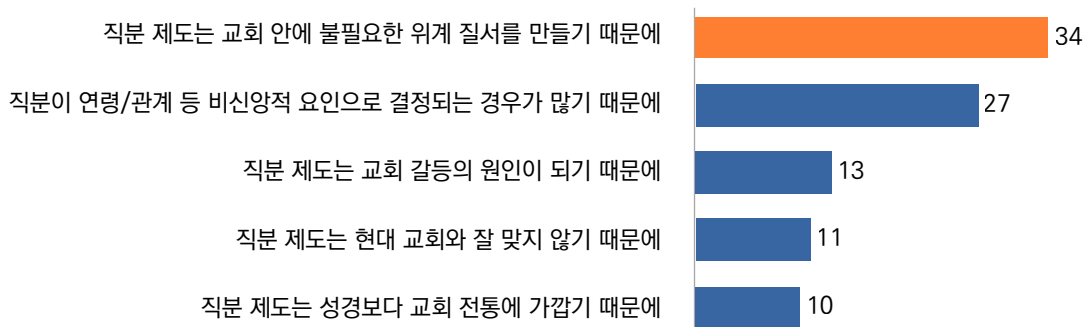
[표]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교회에는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령별	40대 이하	52%
	50대	57%
	60대 이상	60%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54%
	50~99명	56%
	100~499명	55%
	500명 이상	67%

직분제 필요없는 이유, 1위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형성'!

- 앞서 '교회에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에 그렇지 않다(전혀+별로)고 응답한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은 결과, 가장 많은 34%가 '교회 안에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연령이나 관계 등 비신앙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27%),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13%) 등의 순이었다.
- 직분이 섬김의 도구가 아닌 '서열화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세속적 기준의 개입'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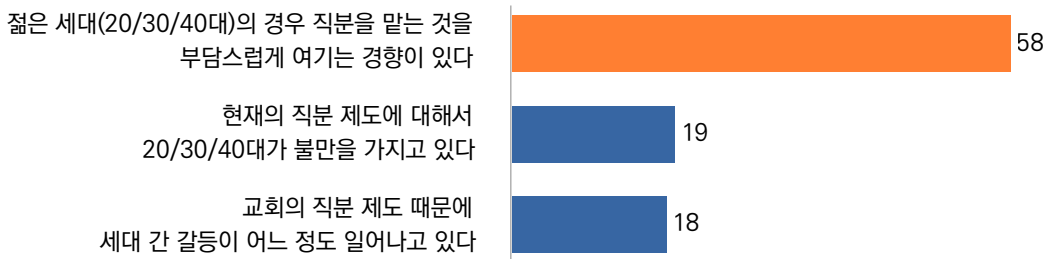
[그림] 직분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직분 제도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N=82, %)



목회자 58%, '젊은 세대는 직분 맡는 거 부담스러워해!'

-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동의율, 매우+약간 그렇다)을 담임목사에게 물은 결과, 목회자의 58%인 10명 중 6명 가까이 '젊은 세대(20~40대)가 직분을 맡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 다만 '젊은 세대가 현재 직분제에 불만을 지니고 있다'(19%)거나 '직분제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18%)는 응답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갈등의 표출보다는 '자발적 기피' 현상이 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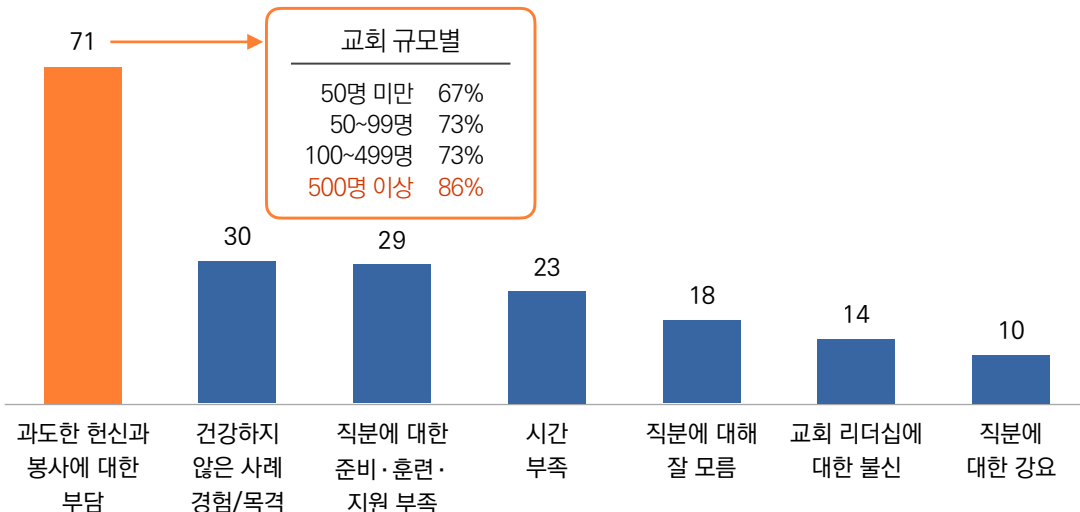


*5점 척도

젊은 세대의 직분 기피 원인, '과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이 압도적(71%)!

-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답한 담임목사들은 그 이유(1+2순위)로 '과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이러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감'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정비례하여 나타났다. '50명 미만' 교회 67%, '50~99명' 73%,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86%까지 높아져, 대형교회일수록 직분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 큼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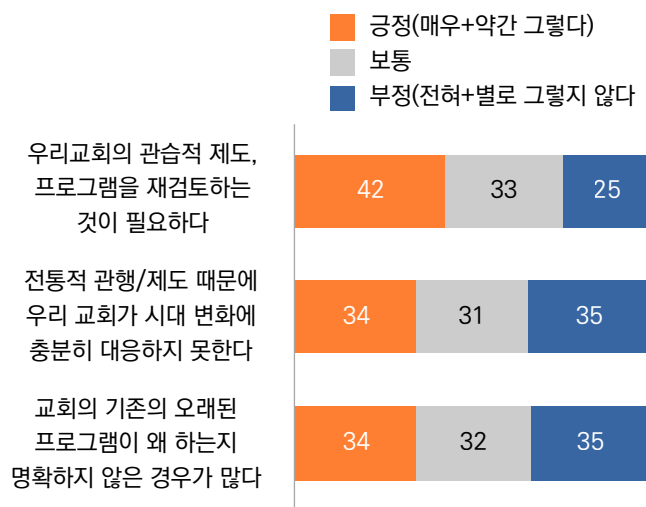
[그림] 젊은 세대가 직분 맡는 것을 꺼리는 이유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상위 7개, 1+2순위, N=303, %)



40대 이하·쇠퇴하는 교회 목회자일수록, '교회의 관습적 제도 재검토 시급'!

- 교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는 목회자의 연령과 교회의 성장세에 따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우리 교회의 관습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에 담임목사의 42%가 동의한 가운데, '40대 이하' 목회자는 절반가량인 51%가 동의해 가장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 또, '전통적 관행이나 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34%)와 '교회의 기존의 오래된 프로그램이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34%) 역시 '40대 이하' 목회자의 불만 표출이 가장 많았다.
- 교인 수 증감별로 보면 '감소(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증가하는 교회에 비해 10%p 안팎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위기 국면에 처한 교회일수록 기존 관습의 변화를 더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교회 제도 및 전통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담임목사, N=521, %)



[표]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률 (연령별/교인 수 증감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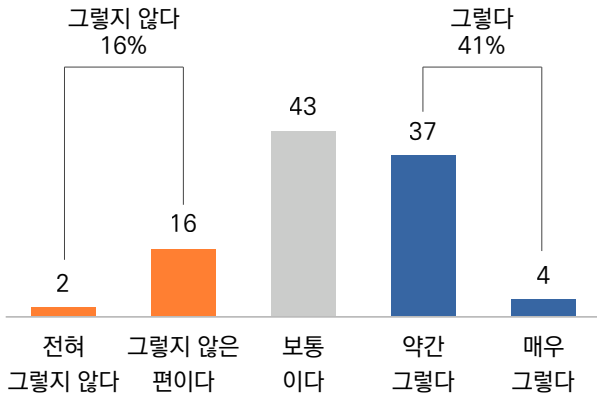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별	40대 이하	51%
	50대	43%
	60대 이상	32%
교인 수 증감별	증가	39%
	감소	50%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당회·제직회 등 행정 회의 효율적’ 동의율, 절반 못 미쳐

- 교회 행정 관습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당회, 제직회, 기획위원회 등 교회의 회의 및 보고 방식이 효율적이다’라는 응답은 4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불만은 젊은 목회자 층과 소형교회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40대 이하’ 목회자(37%)와 ‘50명 미만’ 소형교회(36%)의 경우 동의율이 30%대에 그쳤다.

[그림] 교회 행정 관련 관습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표] ‘교회 회의/보고 방식은 효율적이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교회 회의·보고 방식 (당회, 제직회, 기획위원회, 교인 총회 등)은 효율적이다
연령별	40대 이하	37%
	50대	45%
	60대 이상	42%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36%
	50~99명	47%
	100~499명	44%
	500명 이상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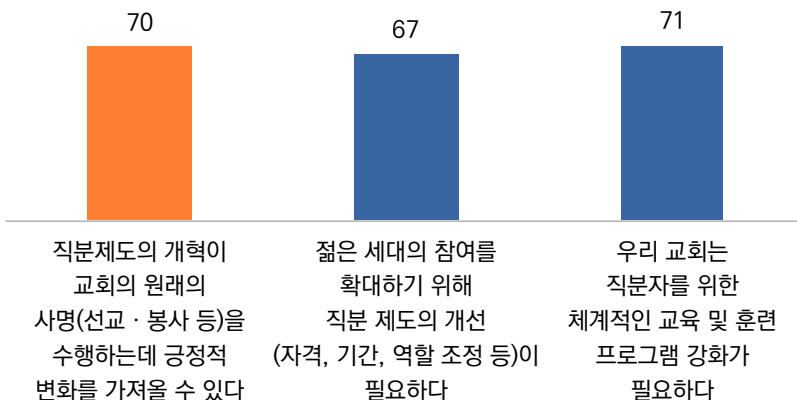
04

[개선 방향]

담임목사 70%, ‘직분제 개혁이 교회 본질적 사명 수행에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 직분 제도 개선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동의율, 매우+약간 그렇다)으로 담임목사 10명 중 7명은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71%)하며, ‘직분 제도의 개혁이 교회의 원래 사명을 수행하는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70%)이라고 기대했다.
- 또,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에도 67%가 동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직분제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그림] 직분 제도 개선과 미래 전망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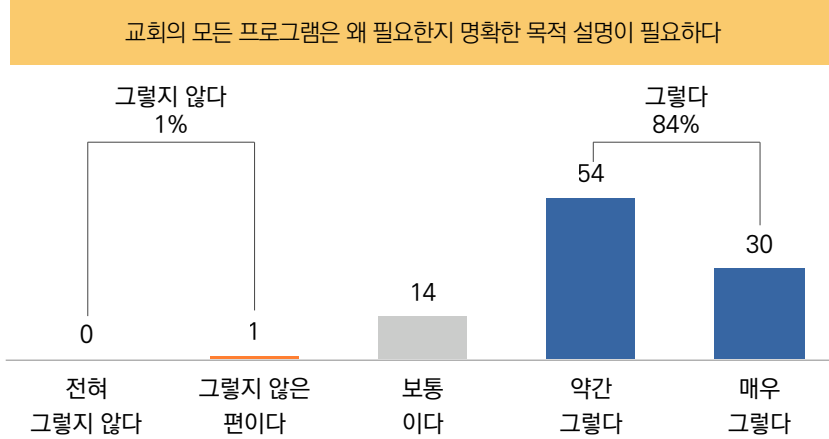


*5점 척도

목회자 대부분(84%),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명 필요'!

- 교회 프로그램 개선 인식을 살펴보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목회자의 동의율은 84%에 달해 매우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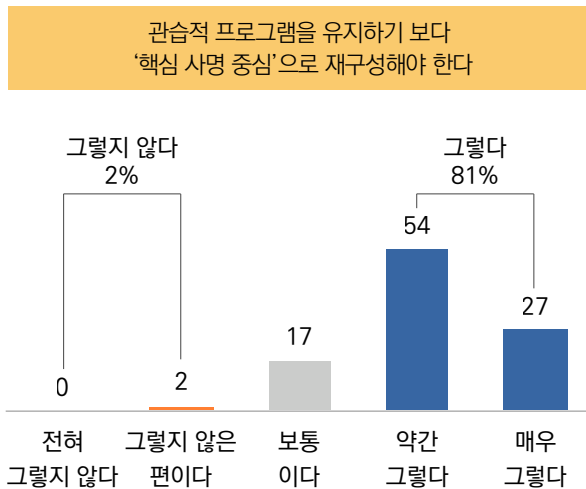
[그림] 교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핵심 사명 중심으로 교회 프로그램 재구성 해야' 81%

- 교회 프로그램 개선 인식 중 '관습적 프로그램 유지보다는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목회자의 10명 중 8명(81%)이 동의했다. 특히 '핵심 사명 중심 재구성' 요구는 '40대 이하' 목회자(86%), '500명 이상' 교회(85%)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교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표]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교인 수 증감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관습적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보다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연령별	40대 이하	86%
	50대	83%
	60대 이상	71%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78%
	50~99명	84%
	100~499명	82%
	500명 이상	85%
교인 수 증감별	증가	87%
	감소	79%

‘성장하는 교회’의 직분·제도 특징,

1. 성경적 원리 근거한 직분제 운영

2. 직분제 순기능 제대로 작동

3. 핵심 사역 중심 프로그램 재구성에 높은 의지!

-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교회 직분·제도 관련 인식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 각각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3가지씩 짚어본다.
- 먼저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쇠퇴하는 교회 대비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직분제를 잘 운영한다는 평가가 높았고, 직분제의 순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었으며, 핵심 사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회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와 비교해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교회의 관습적 제도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였고, 교회 당회 등 행정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직분·제도 관련 성장하는 교회 vs 쇠퇴하는 교회 비교 (담임목사, N=521, %)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1.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직분제 잘 운영 (성장하는 교회 52%, 감소하는 교회 44%)	1.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정적(부담, 불만 등)으로 인식한다고 느끼는 경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직분 제도에 대해 20~40대가 불만을 갖고 있음 (성장 19%, 감소 29%) • 교회 직분 제도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성장 16%, 감소 25%)
2. 직분제의 순기능이 비교적 제대로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 부담 감소에 기여 (성장 64%, 감소 47%) • 성도 신앙 성숙 촉진 (성장 55%, 감소 51%) • 교회 비전 제시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성장 55%, 감소 50%) 	2. 기존 교회의 관습적 제도에 대한 불신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재검토 필요 (성장 39%, 감소 50%) • 전통적 관행/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 못함 (성장 30%, 감소 40%)
3. 핵심 사명 중심 교회 프로그램 재구성 요구 높음 (성장 87%, 감소 79%)	3. 교회 당회, 제직회 등 행정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긍정 인식 낮음 (성장 48%, 감소 30%)

이번호 요약

1. 목회자 절반 가까이(44%), '직분 제도 필수적이다'에 공감하지 않아!

직분 제도 필요성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의 56%만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44%는 '보통' 혹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쳐 직분제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다소 약했다.

2. 목회자 58%, '젊은 세대는 직분 맡는 거 부담스러워해!'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을 담임목사에게 물은 결과, 목회자의 58%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젊은 세대(20~40대)가 직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3. 목회자 67%, 젊은 세대 참여 확대 위해 직분 제도 개선이 필요!

직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에 목회자의 67%가 동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직분제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직분자반 (세움북스, 안재경 저)

관련 성경 구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관습적 제도가 더 이상 당연한 전통으로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4%)가 직분 제도의 필수성에 공감하지 않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행정 회의의 비효율성(42%)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젊은 세대가 과도한 봉사 부담(71%) 때문에 직분을 기피한다(58%)는 결과는, 직분제가 섬김의 통로라기보다 부담과 책임의 구조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분제 개선은 단순히 직분 명칭을 바꾸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핵심은 직분을 '서열'이 아니라 '사역 기능'으로 재정 의하는 것이다. 장로·집사·권사 등 기존 직분이 교회 안의 지위나 연공서열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 직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기제, 사역별 배치, 교육·평가·재위임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장기 헌신을 전제로 한 무거운 직분보다 일정 기간 특정 사역을 맡고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

직분제 개혁의 방향은 '폐지'가 아니라 '본질 회복'이어야 한다. 직분이 전통 보존 장치에 머물면 불필요한 위계 질서(34%)로 굳어질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섬김과 돌봄의 책임 구조로 재정비될 때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52%)가 쇠퇴하는 교회(44%)보다 직분 제도를 성경적으로 잘 운영한다고 평가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교회는 '이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 회의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기여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열과 관행적 프로그램을 줄이고, 말씀·교제/돌봄·제자훈련·다음세대·선교 등 핵심 사명에 직분과 조직을 다시 연결할 때, 직분제는 부담의 제도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섬김의 구조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